

뛰는 물가에 ... 서민들 숨막힌다

목욕료 4% 오르고 외식비 등도 '경증'

가공식품 가격 잇따라 인상 ... 가계부담 가중

물가 오름폭이 임금 상승률을 뛰어넘는 실질임금 상승을 마이너스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지역의 공공요금, 외식비, 개인서비스 비용이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연초부터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가공식품 가격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어 살림살이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19일 안전행정부 지방물가정보 공개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 지역의 도시가스(가정용) 요금은 소비자가격 1만144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6%나 올랐다. 도매요금도 1만883원으로 4.9% 비싸졌다.

개인서비스 비용도 1년 새 치솟았다. 미용료(여성커트)는 평균 1만3400원으로 8.1%, 이용료(남성커트)는 3.8% 인상됐다. 숙박료(여관)는 3만4000원으로 3% 상승했다. 세탁료는 평균 5800원으로 200원 떨어졌지만 목욕료는 평균 5100원으로 1년

사이 200원(4%)이나 올랐다.

외식비도 1년전보다 대폭 올랐다. 지역 식당가에서 판매되는 냉면 한 그릇의 평균 가격은 6800원으로, 비빔밥은 6600원으로 각각 3%씩 올랐다. 김치찌개백반 1인분 가격도 5600원에서 5900원으로 1년 새 5.4%나 뛰었다. 자장면과 삼계탕 가격은 평균 4400원과 1만3000원으로 각각 7.3%, 1.6% 비싸졌다. 삼겹살 가격은 1만422원으로 1만원대를 넘어섰다.

농축산물 가격의 경우 배추, 무 등의 가격 안정세로 농산물 가격은 지난해보다 다소 내렸지만, 돼지고기와 소고기 값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정육 등심) 500g 값은 3만4440원으로 4.9% 상승했고, 돼지고기(정육 삼겹살)는 500g에 8965원으로 13.7%나 경중 뛰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담배값 인상과 함께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CJ제일제당

은 지난해 30일부터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냉동제품 가격을 평균 6.5% 올렸다. 돈가스 등 육가공품은 7.1%, 만두류는 5.9% 인상됐다. 대중적인 식품인 달걀과 우유 가격도 상승세에 있으며 분유 값은 크게 뛰여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부담이 늘었다. 초콜릿, 초코파이, 비스킷 등 군것질거리 가격도 많이 오른 상태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월가 상승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추가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연초 서민 물가의 대대적인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주부 김모(41·광산구 신가동)씨는 "맞벌이지만 마트에 가서 가격표를 보면 숨이 턱턱 막힌다"며 "공공요금도 오르는데 가공식품 가격까지 오르면 살림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295만800원으로 1년 전 294만8552원에서 2248원(0.08%) 느는데 그쳤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무역수지

작년 84억 달러 흑자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가 8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9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14년 광주·전남지역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보다 18억4000만 달러 감소한 554억2000만 달러(3.2%), 수입은 25억8000만 달러 감소한 469억8000만 달러(5.2%)로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9.6% 상승했다.

광주의 수출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162억5000만 달러, 수입은 5.1% 증가한 51억6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전년보다 1.3% 증가한 1억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자동차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경기 회복으로 자동차 수출이 전년 대비 16.5%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가전제품과 철강제품도 각각 4.6%, 7.6% 증가했으나 반도체, 기계류, 타이어는 감소했다.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대비 5.4% 감소한 391억6000만 달러, 수입은 6.4% 감소한 418억1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18.4% 증가한 26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철강제품·선박·기계류가 선전한 반면 화장품·석유제품은 부진했다. 수입은 철광은 증가한 반면 원유·석유제품 등은 감소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산책할 때 딱이야”

19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9층 IT 편집샵인 ‘더 가젯’에서 고객이 비니(모자)에 헤드폰이 부착된 헤드폰 비니를 착용해 보고 있다. 다양한 디자인에 실용적인 기능을 갖춘 이 상품은 추운 겨울 야외 스포츠나 산책 할 때 유용하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새해 새 설계

김영구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

“전남 발주 대형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앞장”

작년 70% 외지업체 시공

분할발주 가능 제도 개선

사회공헌사업 활동 강화

“전남에 발주되는 대형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중앙·지방기관 등 발주기관 관계자들의 전향적 정책지원이 이뤄지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김영구(60)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은 19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건설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건설물량 확보”라며 “제한된 발주 공사 물량 내에서 지역업체가 최대한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주 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복지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건전화에 중점을 두면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불투명성이 여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3000억원 규모의 솔라시도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전남도 발주 대형공사에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적극 지원하고 있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소업체 모두가 극심한 경영위기에 처한 만큼, 공존공생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 및 대형공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실질적 참여 확대를 위해 입·낙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할 것”이라며 “지역업체들이 제값에 보다 많은 일감을 얻어낼 수 있도록 건설업체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남지역 건설업계는 최근 수년 동안 공공공사 발주감소와 가격경쟁 심화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 2009년 990여 개사에 이르던 지역 건설업체 수는 2014년 12월 말 현재 880여 개사로 11%나 줄었다. 특히 완성공사 위주의 예산투입에 따른 신규발주 부진과 공공사업 예산절감을 위한 저가 발주 등이 심화되면서 수익성마저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김 회장은 “지자체 전남지역에서 발주된 공사 가운데 70% 가량을 외지업체에서 시공했다”며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가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다 보니 일부 발주기관은 예산절감이나 관계법령, 관리감독상의 이유로 분할발주를 선호하지 않아 이 또한 지역건설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나 교육청 등 발주기관이 조달청 등에 맡길 게 아니라 직접 건설업체에 발주하거나, 대형공사에 대한 분할발주가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등 기관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협회는 올해도 지역건설업체의 수주활동 지원과 제도 개선,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 등에 중점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 취임 이후 강화한 협회차원의 사회공헌활동도 폭을 넓히기로 했다. 전남도회는 2년6개월간 4325만원을 ‘이웃사랑’에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 회원사로 구성된 ‘사회공헌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김 회장은 “직원들의 월급 자투리를 모아 불우이웃성금을 모금하는 등 협회 차원에서 사회공헌에 힘쓰고 있다”며 “지난 연말에도 전남지역 7개 복지시설에 175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광주 관산 출신으로 중소기업교육성원위원장, 북부권협의회 의장 등 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다.

/임동률기자lexian@kwangju.co.kr

광주상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하라”

광주상공회의소가 19일 “정부가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이라는 명목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대하는 우리 지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었다.

광주상의는 성명에서 “지방의 역량이

수도권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선제적 대책마련 없이 무리하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지방의 인적·물적 자원을 수도권으로 더욱 집중시켜 지방경제를 더욱 파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지방에서 심혈을 기울

여 추진하고 있는 기업과 투자유치 전략에 큰 타격을 입히고 권역별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설립하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역시 추진동력을 상실한 채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광주상의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실효를 거둘 시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지역경제가 튼튼한 기반을 잡은 후에 수도권과 함께 노력해야 국가 전체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동률기자l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02.62 (+14.49)

▲ 금리 (국고채 3년) 2.04% (+0.03)

▲ 코스닥 577.94 (+0.53)

▲ 환율 (USD) 1078.00원 (+0.70)

1636 결과 믿음소망 말하세요

2014 미스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글전화번호 1636

모든 상호·이름이 전화번호가 됩니다

한글 전화번호 1636은 1588, 1544, 1644 등과 같은 대표번호 서비스로 1636 뒤에는 업종, 상호명 등 모든말이 전화번호가 되는 차세대 음성인식 통신 서비스입니다. 1636전화번호 사용중인 상호를 말씀하시면 연결됩니다.

기본의 숫자번호 바꿀필요 없습니다

한글 전화번호 1636은 기존에 사용하던 숫자 번호에 한글번호를 커버링 하는 방식으로 1636을 통해 전화를 걸면 기존에 설정해두신 숫자 번호로 자동 연결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전화번호를 해지하거나 바꿀필요 없이 한글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

1636 음성인식서비스는 애플 아이폰의 음성 인식 서비스시리를 개발하고 삼성전자의 S보이스 서비스에 기술력을 제공하는 세계 1위의 음성 인식 기술회사인 뉴왕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대리점, 에이전시(영업사원) 모집합니다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 '眞'경선간담이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강선자(주)콜피어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모집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

모집 기간 ▶ 2015년 2월 28일까지 (중국어 미학습자 신청가능)

모집 인원 ▶ 30명

수강 기간 ▶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 30시간, 총 720시간 이수)

강의 내용 ▶ 중국유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www.gotochina.co.kr

지급전환주세요!!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233-9582 (중) 구오말리